



# 올바른 투자가 경쟁력을 높인다

노영한  
(본회 전무이사)

새로운 세계질서는 고립해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이제 자본과 사람의 이동이 자유스러워지고, 농축산물의 수출입도 벽을 낮추자는 것이 UR협상이다.

한때는 우리가 UR협상 타결을 반대하기도 하였는데, 이제는 UR협상의 타결과는 관계없이 우리가 GATT BOP 졸업때의 약속 때문에 '97년까지 대부분의 축산물을 수입개방해야 하기 때문에, 6월 22일부터 3일간 과천 농림수산부 청사에서 개최된 한미 쇠고기 협상도 따지고 보면 UR협상의 타결과는 관계없이 '97년까지 쇠고기 수입을 개방할 것을 약속하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우리 입장은 비교역적품목으로 지키거나 UR협상이 타결되면 외국과 국내 생산비 차액을 일본처럼 관세화 하겠다는 입장이어서 UR협상 타결이 안되면 차액 관세도 부과하지 못하고, 다만 국내산업에 피해가 클때 긴급관세 등을 적용하는 것 등이다. 이제는 UR협상의 반대만도 할 수 없는 입장이 되었다.

더군다나 22일 재무부 외자도입 심의위원회는 '97년에는 낙농·양돈·양계 등의 외국자본의 국내투자도 허용하겠다는 것이어서 국제화가 더

욱 빨리 다가오는 느낌이다.

이제 정확히 6개월 후에 다가올 냉장 돼지고기 수입개방을 앞두고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기술농업, 수출농업 쪽으로 가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이를 위해 시설개선 등에 연간 천억원의 자금이 투입되고 있는 것이다.

한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 설비투자가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이다. 그러나 설비투자는 올바르게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가 이러한 큰 돈을 투자해 본 경험도 없고, 몇 해동안 시행해 본 경험에 대한 평가도 공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아쉬움이 있어 필자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지원 대상자 선정인데, 가장 중요하면서도 객관적으로 꼭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이 되지 않을 경우 기본적으로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므로 계속 선정방법, 선정후의 사후관리 등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선정과정에서 생산자들의 의견을 듣는 것도 중요하며 사후관리에도 관계할 필요가 있다.

둘째는 설비투자는 생산능력을 확대하는 것이어서 안된다.

“

세계 경제질서가 아직은 표류하고  
있으며, 최소한 앞으로 10년후 어느  
나라가 돼지고기 수입국이 되고  
수출국이 될 것이며, 이 가운데 우리의  
위상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거기에 맞는 투자를 해야 할 것이다.

”

영세규모의 양축농가를 지원해서 전업규모로  
한다든가, 그래서 지금까지의 관습대로 비육돈을  
생산해서 시장에 판매하는 것으로는 의미가 반  
감된다. 양돈단지의 신설에 있어서도 도시근교는  
분뇨처리 등 어려움이 많으니 단지나 만들어 생  
산 활동을 계속하게 한다는 것이면 의미가 없어  
진다.

그간 우리나라 양돈의 취약점이 시설이 부실  
하여 생산비 절감이 어렵고, 좋은 품질의 돼지고  
기를 생산하지 못한 점이다.

이번 설비투자는 확대재생산을 위한 것이 아  
니고, 양돈산업의 국제화라는 새로운 사태에 대  
비하면서 신제품을 생산하여 국제경쟁력을 높인  
다는 의미에서 양돈업의 능력을 키우는데 두어야  
된다. 덴마크의 삼겹살을 우리는 예술품이라는  
말로 표현한다. 수입종돈, 수입사료에 시설까지  
제대로 갖추고도 품질에 문제가 생기거나 경쟁  
국들보다 앞서가지 못한다면 문제가 있다.

설비투자는 좋은 제품을 만드는데 지금까지  
시설이 걸림돌이 되었던 점을 해결해야 한다. 특  
히 시설분야에서 방역, 위생분야는 품질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셋째, 설비투자는 축산업계에 거품이 사라진  
후 개방화시대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아야 한  
다.

그간 축산업계가 다른 산업에 비해 비교적 거  
품이 많았던 것을 솔직히 시인해야 한다. 가격의  
진폭이 커서 요행이나 불황후 호황때의 큰 마진  
폭, 매년 10~15%의 큰 폭의 수요신장 등도 있  
지만, 축산업의 특징이 토지를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부동산의 거품 혜택을 보아왔다. 농장을  
하면 부동산가격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던 시대가  
지나갔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나라에 국한된 것  
이 아니고, 선진 여러나라에서 공통적으로 오는  
현상이다. 이제 수입이 개방되면 가격의 진폭도  
적을 것이고, 두당 수익도 적을 것이기 때문에  
거품축산 이후의 사태에 대비하여 설비투자를  
계획해야 한다.

넷째로, 세계 경제질서가 아직은 표류하고 있  
으며, 최소한 앞으로 10년후 어느 나라가 돼지고  
기 수입국이 되고 수출국이 될 것이며, 이 가운데  
우리의 위상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거기에 맞는 투자를 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모처럼의 좋은 기회인데, 이번 기회에  
국내 축산 기자재업체가 큰 성장을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합작 기술제휴도 좋고, 이제 국내 자재·기  
계·전자산업이 많이 발전하였으니 새로운 제품  
을 개발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수입종축, 수입  
사료, 수입약품, 수입축사, 필리핀이나 태국, 연변  
의 관리인으로 운영되는 축산이 분뇨처리 등 공  
해문제와 생산된 제품의 안정성마저 문제가 된  
다면 이번 설비 투자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  
는 목적이 바탕에 깔린 설비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필요**